

# 무안군, 농번기 농촌인력수급 대책 마련 “일손 돕기 선제 대응”

### 인력지원 종합상황실 운영·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등 오늘부터 내달 19일까지 친환경농업과에서 자원봉사 모집도

무안군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 농가들을 위해 지난 10일 '농번기 인력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농번기가 끝날 때까지 추진한다.

주요 방안으로는 ▲인력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농업근로자 기숙사 활용방안,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군부대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농촌 일손 돕기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탄력 운영,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인력지원 종합상황실은 농번기 해소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농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담당 실과소, 9개 읍·면, 지역농협이 분야별 대응반으로 참여한다.

농정과에서는 계절근로자 운영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촌 일손 돕기에 관한 사항, 농촌지원과에서는 농기계 임대 관련 사항, 지역농협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읍·면사무소에서는 계절근로자와 농촌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농가 수요조사 및 알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예정 인원은 54명에 그쳤지만,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친족 대상 계절근로자 도입과 적극적인 홍보로 237명의 근로자 신청을 받았으며, 앞으로 MOU 체결 국가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기숙사를 거점으로 운영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의 노동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관내의 인력이 필요한 농가로부터 작업 내용과 필요 인력 등을 파악해 영농작업반을 구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하는 등의 효과적인 중개를 지원한다.

군은 봉사단체와 군부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활용한 농촌 일손 돕기를 농번기 해소 시까지 추진한다. 군은 관내 대학, 군부대와 협의해 일손 돕기 지원 인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 모집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간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인력수급 대책 추진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학생과 봉사단체들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인력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 기자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인력수급 대책 추진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학생과 봉사단체들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인력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 기자

## 함평나비대축제, 축제 현장에 꿈과 희망의 대형 꽃탑 올린다

### 지름 10m 높이 14m 꿈나무·희망나무 조형물 2개 꽃탑 쌓기 작업 실시



꿈과 희망의 대형 꽃탑이 함평나비대축제 현장인 함평엑스포공원에 올려지고 있다.

함평군은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지난 18일 엑스포공원 주재관 앞에 지름 10m, 높이 14m 규모의 꿈나무, 희망나무 조형물 2개에 꽃탑 쌓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에는 웨이브 사피니아 화분 4,500개가 소요됐으며, 관광정책실 직원을 비롯해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과 크레인 등의 장비가 동원됐다.

특히, 축제 기간 꽃탑의 꽃이 만개하면 형형색색의 꽃들로 단장한 축제장과 어우러져 주간은 물론 야간 경관으로서도 아름답고 멋진 광경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함평나비대축제는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체험, 전시, 문화예술 행사로 개최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이용·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영광군은 지난 17일 영광터미널 시장 및 주변 상가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착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물가 안정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실시했다.

캠페인은 터미널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상인들과 주변상가 및 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물가안정 홍보물을 배부하고, 착한가격업소의 많은 이용과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등의 계도 활동을 함께 추진하였다.

또한, 영광군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정해 직원들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세제, 종이컵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민관이 함께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올해 첫 모내기...8월 수확 예정

영암군에서는 19일 신북면 모산리의 한 논에서 농민 유선열씨가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 모내는 못자리에서 기른 벼가 일정 기간 자라면 논에 옮겨 심는 과정으로, 논 이모작을 가능케 해 논지 활용과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풍년을 기원했으며, 군은 이날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모내기가 이루어져 8월 중순경에 완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신안 자은면 둔장마을미술관, 2023년 작은미술관 전시활성화지원 사업 선정

신안문화원(원장 주장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년도 작은미술관 전시활성화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신안문화원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은미술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둔장마을 주민과 함께 둔장마을미술관을 운영했다.

둔장마을미술관은 1970년대 마을 주민이 직접 세운 마을회관을 새 단장한 곳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지난 3년 동안 19명의 작가가 둔장을 찾아와 전시회 15회, 전시작

품 500여 점, 섬 문화로 활용한 돌봄과 치유의 교감을 담은 교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마을 주민들에게 기적과 같은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사업종료에 따른 둔장마을 주민과 참여 작가들의 안타까움 그리고 지속 운영되길 염원하는 바람이 이어졌으며, 신안군과 신안문화원이 협력하여 4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다.

2023년도 둔장마을미술관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의 섬 마을, 문화예술로 극복하기'란 주제로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다.

신안=이덕주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